



조건 제 808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력 4월 4일)

## 5·18 조롱한 ‘스벅 탱크데이 마케팅’…불매운동 후폭풍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 시리즈〉

5·18 연상 마케팅 비판 확산…광주지역 매장 ‘한산’ 시민들 “광주정신 조롱…상처 건드렸다” 분노 표출 비판 커지자 정용진, 손정현 스텍코리아 대표 해임

“평소와 다르게 빈 자리가 많네요.” 5·18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광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손님들로 붐비던 매장 곳곳에는 빈자리가 늘었고,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 고객들로 붐벼 할 공간은 예상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창가 좌석과 공용 테이블 곳곳이 비어 있었고, 노트북을 펼친 손님들도 띄엄띄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커피머신 소리보다 잔잔한 배경 음악이 더 크게 들릴 정도로 매장 내부는 조용했다. ▶관련기사 10면

었다. 매장 직원은 분위기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차로 10여 분 떨어진 또 다른 DT 매장 상황도 비슷했다. 인근 오피스 상권 특성상 오전부터 주문 대기가 길게 이어지던 곳이지만, 이날은 주문과 음료 제조가 거의 기다림 없이 진행됐다. 2층 좌석 역시 손님보다 빈 의자가 더 많았다. 이러한 모습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텀블러 마케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신군부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다. 여기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하는 ‘책상에 탁!’ 문구까지 논란이 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다.

이는 고스란히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무지구 인근에서 다른 브랜드 커피를 들고 지나가던 박모씨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스타벅스를 찾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선풍 들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여성 시민도 “이 시간대면 늘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자체가 다르다”며 “당분간 방문이 꺼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46·여)도 “대기업이면 수차례 검토와 결재를 거쳤을 텐데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더 이해되지 않는다”며 “광주시민 입장에서선 조롱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u1040@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와 105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고양인 경복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사내에 일본 총리와 10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33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72분간의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동 위기 고조 속 에너지 안보 협력에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 전남도, 서남권 합정 MRO 산업거점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세계시장 공략 속도

전남도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공모에 선정돼 서남권 합정 MRO 산업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 245억원·지방비 245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전남·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전남도는 합정 MRO 협력사 지원센터 건립,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스마트 MRO 기술개발과 실증, 인종·보안 컨설팅, 방산 수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 활용 장비 구축을 통해 중소형 협력사의 합정 MRO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지원 로봇과 단종제품 개발, 특수소재 국산화 등 스마트 MRO 기술

개발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합정 MRO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 성장해 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계기로 국내에 미 해군 합정 MRO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목표에 해양경찰정비창이 개칭해 합정 MRO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리조선소와 기자재기업이 밀집한 전남의 선박수리산업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해경정비창의 목표 구축 과정에서부터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지속한 결과 정비창이

개칭한 지 2달만에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또 해경정비창은 현재 지역 조선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술 자문과 임찰 참여 지원프로그램을 가능 중으로, 이를 통해 지역 업체에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선정된 산업통상부의 ‘중소조선 합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이어 방위사업청 사업 선정으로 합정 MRO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해양경찰정비창 개칭과 함께 산업부·방사청 지원사업을 연계해 서남권 합정 MRO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지역 조선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알림

####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김경일 아주대 교수 21일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 호텔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5월 21일(목) 오후 6시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강사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초(超)고수들의 일하는 방식’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교수는 국내 대표 인지심리학자로 다양한 방송과 강연 활동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청강사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 제 : ‘초(超)고수들의 일하는 방식’  
△일 시 :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광주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 5층(구, 라마다호텔)  
△기타사항 : 오후 6시부터 석식 제공(17층 파라뷰)  
△문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062-370-7090)  
△주 최 : **광남일보**

광주·전남 최대 80mm 비 21일까지 강한 비·강풍

한동안 이어졌던 초여름 더위가 비와 함께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20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20~60mm 수준이며,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20일 밤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된다. 비가 내리면서 최근 이어진 무더위도 한층 누그러질 것이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상된다. 21일 역시 아침 16~18도, 낮 21~24도로 예보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정 선거		
지방의회 의원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 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세종·제주 (4명)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민선거도 함께 실시

####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입장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투표 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 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잃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